

# 1980년대 해체시의 웃음시학

## - 박남철 시에 나타난 웃음의 부정성(Negativity)을 중심으로\*

김난희\*\*

1. 서론
2. 웃음과 시적 언어의 부정성
3. 의미의 경계 넘기로서의 웃음 전략
  - (1)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 생성의 다중화
  - (2) 언어유희와 파라그램(paragram)적 의미실천
  - (3) 범주화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980년대 해체시의 대표적 시인으로 거론되는 박남철 시의 웃음에 대한 시학적 고찰이다. 일명 ‘유희적 해체’로 불리우는 박남철 시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과 의미작용을 시적 언어의 부정성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된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박남철의 웃음에 주목하였던 것은 언어적 파괴와 형태 파괴를 통한 해체적 실험시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적 해체시가 ‘가장 박남철다운’ 특성을 지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웃음이 지니는 의미화를 해체시와 관련하여 어떻게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B5A07037754)

\*\* 서강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규명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웃음이 지나는 해체적 특성과 시적 언어가 지니는 부정성이라는 특성을 접목시킴으로써 웃음의 생성기제가 시적 언어의 부정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시적 언어의 부정성 차원에서 살펴본 박남철 시 텍스트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과 기능은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 생성의 다중화>, <언어유희와 파라그람(paragram)적 의미실천>, <범주화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생성의 다중화> 같은 경우는 통사규칙의 위반을 통해 유발한 웃음이 의미의 다중성과 불확정성, 유동성을 낳는다는 차원에서 시적 언어의 부정성이 생성하는 의미의 무한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유희와 파라그람(paragram)적 의미실천>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한 파라그람적 글쓰기가 선(線)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망을 해체하고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의미생산을 가능케 하는 시적 언어의 기제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범주화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에서는 단어의 범주화가 갖는 개념 설정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일상적인 단어의 범주가 은폐시키고 있는 의미 영역을 노출시켜 언어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의미실천이 바로 웃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웃음, 시적 언어, 부정성, 통사 규칙의 위반, 의미의 무한성, 언어유희, 파라그람(paragram)적 글쓰기, 범주, 범주화의 오류.

## 1. 서론

한국 현대 시사(詩史)에서 박남철은 1980년대 ‘해체시’의 대표시인으로 주로 언급된다. 그에 따라 박남철 시 연구의 대부분은 해체시의 기법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sup>1)</sup>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박남철 시에 나타난 해체시의 기법은 순수 서정시나 참여적 민중시의 기존문법에서 이탈

한 과감한 실험양식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간의 시 문학이 순수란 미명 아래 현실과 겉도는 틀에 갇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참여란 미명 아래 언어의 자율성이 집단 논리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점, 이 두 모순적인 대립 양상 틀에서 언어의 본질과 형상이 뒤엎히고 개인적인 자기 인식과 전체적인 인식이 충돌하면서 스스로의 틀을 찢고 부숴버리는 상상력이 방출된 것으로서, 이는 우리 시의 이분법적인 극단논리를 극복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sup>2)</sup>는 시사(詩史)적 배경을 서두로 삼아 이루어진다. 이에 더하여 1980년대 해체시에서 언어나 문법을 파괴하는 것은 곧 권력, 기성질서, 허위의식을 파괴하는 것임은 물론 그것이 전체주의에 항거하는 방법적 저항이라는 해석<sup>3)</sup>도 마치 관례처럼 붙는다. 따라서 이 당시 해체시는 기존 시의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용의 시를 모색해보려는 문학적 실험으로서, 파편화된 시대의 진실을 객관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sup>4)</sup>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특별히 박남철 시 텍스트에 나타난 웃음<sup>5)</sup>에 주목하여 이 웃음의 텍스트화 양상과 효과에 대해

- 
- 1) 해체시의 기법과 관련하여 박남철의 시 텍스트를 언급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상금, 「기법의 자유로움 혹은 정신의 자유로움」, 『오늘의문예비평 1』, 1994 .4; 정효구, 「박남철 論」, 『현대시학』, 1991. 2; 김현, 「방법적 인용의 시적 성과-박남철의 시세계」, 『현대시세계』, 1990. 9; 신현철, 「자유로운,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현대시세계』, 1991. 봄.
  - 2) 이운택, 「현실을 껴안은 인간의 상상력」, 『용의 모습으로』, 박남철 비평시집 I, 청하, 1990, 발문, 110쪽.
  - 3) 장정일, 「다원주의 문학에 대하여」, 『오늘의문예비평 2』, 1991.7, 144쪽.
  - 4) 신현철, 「자유로운,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현대시세계』, 1991 봄, 165쪽.
  - 5) 이 논문에서 언급하게 될 웃음의 개념은 대체로 웃음이 유머(humor), 웃음(laughter), 희극(the comic), 혹은 희극적인 것, 우스꽝스러움(the ludicrous), 재미(the funny), 농담(joke), 기지(wit)와 같은 유사한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제한된 의미 안에서 희극(the comic)과 상호 교환 가능한 의미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영어의 희극이 골계로 번역되고, 더욱이 미적 범주의 한 양상으로서 다루어져왔음을 감안할 때, 웃음은 희극이나 희극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순욱, 『한국 현대시와 웃음시학』, 청동거울,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박남철의 웃음에 대해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박남철의 시 텍스트에 나타난 웃음은 앞서 살펴 본 해체시의 의미와 그 시적 대응을 관련하여 살펴볼 때 다분히 문제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1980년대 해체시의 본령이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이자, 현실을 지배하는 질서에 대한 파괴이며, 부당한 질서를 구성하는 아버지(상징계)에 대한 거부였다<sup>6)</sup>는 것은 곧 시적 언어를 통해서 현실의 억압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 되는데, 이때의 시적 언어는 일반적인 의사 전달 도구로서의 의미의 지시성과 투명성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의미 창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남철의 경우, 이러한 시적 언어로서의 자질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박남철 시에서 나타나는 웃음이 당대의 해체시가 추구했던 언어 해체의 한 양상으로 기능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웃음은 어떻게 의미의 해체를 감행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둘째, 박남철이 자신의 텍스트에서 보여준 해체적 스펙트럼은 다소 온건한 해체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과격한 형태의 실험성과 형식 파괴를 보여준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고 판단되지만, 당대의 해체적 경향의 시인들(황지우, 이운택, 이성복)과 비교해볼 때 가장 ‘박남철다운’ 시적 언어는 바로 웃음(유희)에서 비롯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평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박남철에게서 나타나는 웃음은 그의 해체시적 특징을 가장 개성적으로 드러내는 요소<sup>7)</sup>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는 시적 언어로서의 웃음이 박남철의 시 텍스트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박남철 식의 ‘유희적 해체성’은 어떤 의미

---

2004, 23-24쪽 참조.

6) 구모룡,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 좋은날, 1998, 103쪽.

7) 박남철의 웃음이 ‘가장 박남철다운’, 즉 ‘유희적 해체’라는 명명을 가능케 한다는 차원의 언급은 김현의 「방법적 인용의 시적 효과-박남철의 시세계」(『현대시세계』, 1990. 9.), 정효규의 「박남철 論」(『현대시학』, 1991. 2.), 김병익의 「시, 혹은 진실과 현실 사이」(『地上의人間』, 문학과지성사, 198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하히 1980년대의 ‘해체시’라는 시사(詩史)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1980년대 해체적 증후로서 나타난 ‘해체시’ 양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준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 텍스트는 비교적 박남철의 초기 시에 해당되며, 1980년대에 출간된 『地上의 人間』(문학과지성사, 1984)과 『반시대적 고찰』(한겨레, 1988)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2. 웃음과 시적 언어의 부정성(Negativity)

시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웃음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해체시와 관련된 것인만큼 ‘의미의 해체’라는 측면에 국한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의 웃음은 고전주의적 미학과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문학과 예술의 주변부적인 위치에 놓여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소위 말해 ‘웃음의 우월이론’이라 불리우는 웃음의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sup>8)</sup>, 웃음은 무언가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웃음의 우월이론’은 웃음을 상식이나 도덕 같은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나 도덕적

---

8) 플라톤은 그의 노년의 저서 『필레보스』에서 아름다움, 현명함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즉 무지의 우스꽝스러움을 웃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때 플라톤이 언급한 ‘무지의 우스꽝스러움’에는 대부분 잔혹성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은 약자의 무지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웃음을 잔혹한 웃음이라고 한다. 이는 17세기 들어 이성적 계몽주의자인 흄스의 ‘웃음의 우월이론’으로 이어지는데, 흄스의 웃음의 우월이론은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나 자신의 이전의 결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웃음을 의미한다. 흄스의 ‘웃음의 우월이론’은 이후 많은 교정과 논쟁으로 거듭 논의되기도 하지만, 서구의 웃음이론에 대한 논증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논의가 된다.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125-142쪽 참조.

으로 흠결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이상 모델에 근거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된다는 존재론적 가치평가를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에서 나온 웃음은 대체로 비웃음과 등가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웃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이성이 지배하던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면 웃음을 일종의 ‘이성의 위기’로 여기게 되며, 웃음과 우스꽝스러움은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아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수용되었다.<sup>9)</sup> 이 당시 웃음의 원인이 오성에 있다고 보는 모든 이론들은 웃음의 현상을 본질적으로 “부정(不定)의 운동”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이러한 부정의 운동으로서의 우스꽝스러움을 극복하거나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움의 부정이야말로 이성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논리적 사고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웃음의 우월이론’과 함께 대표적인 웃음이론인 ‘웃음의 불일치 이론’<sup>10)</sup>의 포석을 마련한 칸트의

---

9) 위의 책, 190쪽.

10) ‘웃음의 불일치 이론’은 흄스의 ‘웃음의 우월이론’과 함께 서양의 거대한 두 개의 웃음이론으로 꼽힌다. 이 이론은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기대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묘사에서는 오성이 갑자기 중지한다..... 이때 발생하는 웃음에는 뭔가 불합리한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이후 제임스 비티의 “동일한 집단에서 불일치하게 결합된 것들” 혹은 “어떤 상관관계나 혹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되는 동일한 것들의 집단에서 혼치 않는 혼합과 불일치”라는 입장으로 이어지면서 ‘웃음의 불일치이론’의 계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쇼펜하우어의 “하나의 개념과 실제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갑자기 인지된 불일치”라는 입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의 책, 204쪽, 275쪽 참조.) 이 ‘웃음의 불일치이론’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립되는 대상을 폭력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희극적인 웃음이 유발된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이때 대립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자질은 고상한 것과 사소한 것, 우아한 것과 우아하지 못한 것,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 부조리와 논리, 실재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등이다. 이순욱, 앞의 책, 35쪽 참조.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무(無)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서 유래한 격렬한 흥분이다.”라는 정의도 이성에서 발견하기 힘든 ‘무언가 불합리한’ 것으로서의 웃음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월론적 입장에서 불일치로 가는 웃음의 고전주의적 개념은 웃음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동일시로부터 배제되었던 타자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인 바, 이점과 연관되어 후기 근대에 와서는 고전주의적 개념의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일종의 기제로서 웃음을 언급하는 입장들이 등장하게 된다. “기독교적인 현자, 육화된 로고스로서의 현자는 웃음을 두려워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웃음을 “윤리적, 신체적 황폐화와 내면적으로 결부된 원죄사건”으로 파악한 보들레르로부터 인간이 그의 자연적인 주위 세계에서 발견한 모든 법칙성, 논리, 이성, 그리고 대칭구조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러한 논리와 이성의 억압으로부터의 이탈, 즉 기존의 가치와 규범체계를 전도시키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고 주장한 니체, 쾌락의 차원에서 억제와 억압을 없앴으로써 정신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로 웃음의 효과라고 보았던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웃음 이론은 고전주의적 웃음개념이 배제시켜왔던 타자(비이성, 비합리적인 것, 육체)를 드러냄으로써 ‘의미의 해체’가 곧 웃음이라는 해체론적 웃음 이론에 맞닿을 수 있게 된다.<sup>11)</sup>

‘의미의 해체’가 곧 웃음이라는 후기 근대의 웃음 개념은 니체나 바타이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헤겔의 총체성 개념을 포기하는 데서 유발되는 것으로,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역사 및 세계의 의미를 해체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니체), 혹은 인식의 경계를 허무는 인식의 ‘경계넘기’(바타이유)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웃음은 단순히 수사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기 구조주의와 연관되어 의미 해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

11) 정현경, 「웃음에 관한 몇 가지 성찰」, 『카프카 연구』 제21집, 한국카프카학회, 2009, 226-229쪽 참조.

주체와 사회체계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각인되어 왔던 웃음에 대한 시각이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러서는 의미의 전복을 시도하는 해체미학을 대변하는 것으로 전화된다.<sup>12)</sup> 웃음이 기존의 고정적이고 의미 불변한 체계나 논리에 대항하고 그 의미를 해체한다는 후기 근대에서의 웃음 개념은 웃음의 속성이 마치 시와도 같다는 바흐친의 언급을 연상시킨다. 바흐친은 웃음이 이미 만들어진 것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시 역시 기존의 모든 사물(사건)을 의문시하고, 새로운 언어와 규칙을 창조하기 때문에 웃음의 속성은 마치 시의 속성과도 같다고 본 것이다.<sup>13)</sup> 이 지점에서 필자는 웃음이 바로 시적 언어가 갖는 부정성과 등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크리스테바의 입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언급한 시적 언어의 부정성(Negativity)이란 일상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와는 달리, 시적 언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비논리성, 의미의 무한성 차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sup>14)</sup> 즉 시적 언어는 일상적 파롤의 논리적 체계를 따르는 것(정의, 결정론, 시니피앙/시니피에의 수직적, 또는 계층적 구분)이 아니라 무한히 확대되어가는 조합이자 결합이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한, 이중적인, 혹은 다의미적인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파롤의 법칙을 부정하면서 생산되는 담론으로서, 어떤 특별한 존재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의미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적 언어는 그 자신의 과정을 의미와 무(無)의, 언어와 리듬 사이의 결정 불가능한 과정에 위치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시적 언어는 일종의 논리적인 정립 국면을 일컫는 상징계(The Symbolic)와 상징계 이전의 육체적인 움직임과 순간적으로 유흥적인 분절이 이루어지는 장인 기호계(The Semiotic) 사이의 끊임없는

12) 피종호, 『해체미학』, 뿌리와이파리, 2005, 269-271쪽 참조.

13) 게리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613쪽.

14)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세미오티케』, 동문선, 2005, 238쪽.

15) 줄리아 크리스테바, 위의 책, 248-249쪽; 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9쪽 참조.



변증법적 교호작용으로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과정을 시적 언어의 부정성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상징계와 기호계의 변증법적 교호작용(혹은 상징계 내에서의 기호계의 산출과정)을 일컫는 시적 언어의 부정성은 이질혼성적(heterogeneous)인 것이며, 음소나 형태소, 어휘소, 또는 리듬과 억양 등에서 나타나며, 형태-통사론적 파괴를 통해서 표면화된다. 이것은 시적 언어의 의미작용이란 상징계에 대한 거부이자, 이로 인한 변형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동적이고, 다중적인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언어의 부정성 개념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상징계적인 의미를 파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생성시킨다는 점에서 ‘의미의 해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후기 근대의 웃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의미의 전복과 의미의 경계 넘기, 의미의 불확정성 등으로 명명되는 의미 해체 차원에서의 웃음을 시에서는 시적 언어의 부정성으로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크리스테바가 “웃음이 곧 실천” 이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 3. 의미의 경계 넘기로서의 웃음 전략

기존 의미의 부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웃음과 시적 언어의 부정성이 등가의 것이라고 할 때, 이는 기존 언어를 재할

---

16) 크리스테바는 의미의 무한성과 비논리성에 기반하는 시적 언어는 언어의 다양한 가능성의 개척과 발견이며, 기존 언어의 망으로부터 오는 타성을 타파하고 언어학자들에게 기호의 의미생성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동적인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시적 언어의 의미생산은 바로 의미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앞의 책, 150-151쪽) 또한, 이 실천의 메커니즘을 증언하는 작용으로 웃음을 꼽는데, 웃음이란 의미 단절의 징후, 의미화의 실천에 내재하는 이질적 모순의 징후로서, 기존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경계선상에서 의미의 단절을 유보하기 위해 부정성을 끊임없이 실천한다고 본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256-260쪽 참조.

성화함으로써 상징계의 언어가 지니는 억압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상징계와 기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의미 생산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박남철의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웃음의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생성의 다중화

웃음의 문학적 실천이 기존의 언어 관습에 대한 투쟁의 징후이자, 사전적 의미망의 해체를 통해 억압되고 도구화된 상징계의 질서와 구조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이라면, 박남철 시 텍스트에서 이러한 웃음의 전략은 우선 통사론적 규칙의 위반과 이로 인한 의미생성의 다중화를 들 수 있다. 박남철 시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사 규칙의 위반과 그로 인한 웃음의 출현은 통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술어를 주어에 붙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통해 통사론적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생략으로 인해 단어난 문장이 완결되지 못한 경우, 의도적인 불합리를 계산한 행각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아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머라고

①돈 좀 주 니 집에 와서 쓴 돈이 벌써 얼맨 줄 아나

8마년 돈이다 8마년 돈 돈 좋아요

저도 78년도부텀은 자립하겠음다

자립 니 좋을 대로 이젠 우리도

힘없다 없다 머 팔개 있어야제

②자립 78년도부텀 흥 니 좋을대로

근데 아버님 당장 만 원은

필요한데요 ③아버님 78년도부터

당장 자립 하그라

(중략)

자알 배왔다 논  
팔아 올레서 돈 들에 시긴  
공부가 게우 그 모양이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끼 이 천하에

소새끼 같은

아버지 천하에  
소새끼 같은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야아 이 놈아  
(후략)

「아버지」 중에서

위 텍스트의 경우, 앞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동원되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생략으로 인해 단어나 문장이 완결되지 못한 경우를 보자. ①“ 돈 좀 주”, ②“자립 78년도부터”, ③“아버님 78년도부터”에는 논 팔고 소 팔아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더 이상 팔 것도 없이 가난한 아버지 앞에서 염치없이 돈을 달라고 하려다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시적 주체의 난감한 정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문장의 생략기법(생략이라기보다는 문장의 미완성에 가깝다)은 난감한 정황이 지니는 다층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즉 고생하는 아버지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적 주체의 난감한 상황이 통사적 규칙의 위반으로 나타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시적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무한성, 다층성 차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사의 위반을 통해 시적 의미작용을 일정한 층위에 고정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박남철의 시가 당대 시단에서 “순수

란 미명 아래 현실과 겹돌고 있었던 전통적 서정시와도, 참여란 미명 아래 언어의 자율성을 집단논리의 틀에 가두어버렸던 민중적 리얼리즘 시와도 단절하고자 하는 도전이었다.”<sup>17)</sup>는 평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궁핍한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그 현실을 지시적이고 전언적인 차원에서 재현할 수 없는 ‘실재’의 난감(모순적 상황)이 박남철 시 텍스트에서는 이렇듯 해체적 차원의 웃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갈이 역시 웃음을 유발하는데, 밑줄 친 부분(“당장 자립 하그라”, “소새끼 같은”, “소새끼 같은 아버지”)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불합리한 행갈이 역시 일차적으로는 통사론적인 의미작용을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장 자립 하그라”의 경우에는 앞선 문장( ③“아버님 78년도부터”)과의 행갈이가 아니라 아예 연을 바꿈으로써 앞 연의 내용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앞 연에서 “78년도부터” 자립하겠다는 면서도 “당장 만원은 필요하다”는 시적 주체의 발화 내용에서 “당장”과 “자립”이라는 어휘를 빌려와 상호텍스트적 문맥으로 옮기면서 그 사이에 다중적인 의미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웃음을 유발한다. “당장”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면서 일의적인 의미는 지워지고,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생성이 일어나 웃음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를 “소새끼 같다”라고 한 건지, “소새끼”라고 아버지가 시적 주체에게 발화를 한 것인지 그 분명한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갈이 역시, 행갈이로 인한 통사규칙의 위반을 노린 것이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통사규칙을 부정함과 동시에 의미의 복수성(複數性)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 와중에서 아버지가 “소새끼”인지, 아버지가 시적 발화 주체에게 “소새끼”라고 한 것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논리를 무너뜨린 한바탕 웃음이 생성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궁핍한 생활 속의 현실은 일상적 논리를 벗어나 의미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그 의미망은 무한히 확대된다. 이는 1980년대의 민중시들이

---

17) 이윤택, 앞의 책, 발문, 110쪽.

직설적인 전언 차원에서 민중들의 억압과 생활고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언어적 표상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박남철 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언어로는 불가능한 현실의 재현을 웃음이라는 실천을 통해 파괴함과 동시에 새롭게 지각케 하는 효과를 자아낸 것이다.

1

① 듣고 싶다, 말이 듣고 싶다, 말  
말, ‘말’뿐이 아닌 말 한 마디 듣고 싶다

② .....과 그것은 自由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더 그러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는 생각, 생각하면 무엇하나, 이진 이미  
所聞에 나버린 워낙 전폭적인 ‘말씀’인데

③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그 밖에 더 무슨 할말 있겠는가.....는 생각, 또 생각,  
생각하면 무엇하나, 이 역시 이미 所聞에 나  
버린 아주 肅靜된 말씀인데.....그래? 그렇다면  
(중략)

④ 좌우지간, 어쨌든 6백만원은 있어알 텐데.....우리의  
입 밖으로 못 나오는 情蟲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우리는

결혼해도 불행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다  
혼자 있어도 불행하고 社交場에 있어도 불행하다  
우리는 溫氣 때문에 모여 있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있어도 불쾌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불쾌하다.....아니

아니, 이것 역시  
schopenhauer영감의 毒舌일 뿐인 것이고

⑤ 좌우지간 어쨌든, 6백만원은 있어얌 텐데.....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의 사.....

랑 來日이면 서른이 되는, 아뽀싸, 내 나이여!

시간-분-초, Tomorrow-never-comes!

조하다초조하다, 지극히, 초조하다초가집쳐마끝에매달린고드름

같은 내 焦燥여!

(후략)

「자유.....로운 雜念」 중에서

이 텍스트에서는 생략법이 두드러진다. 이 생략 표시는 기호가 의미로 향하는 추동력을 차단시키며 불확정성을 끊임없이 도출시키는 가운데 웃음을 생성시킨다. 말없음표는 웃음으로 기표의 효과만 부풀리고, 기호의 의미되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결된 단어나 문장이 의미가 되려는 힘을 억제하여(①, ②, ③의 경우) 의미의 애매성을 확산하고 있는 통사론의 위반이다. 또한 갑작스런 화제의 전환을 유도하여 앞서 언급한 담화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④와 ⑤의 경우) 역할을 맡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의 말없음표는 언표된 내용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제거시켜버린다. 여러 가지 생각을 나열한 끝에 갑자기 언표된 “6백만 원”과 “입 밖으로 못 나온 情蟲”, “사랑”, “나이”, “Tomorrow-never-comes!”, “조하다초조하다, 지극히, 초조하다초가집쳐마끝에매달린고드름” 등 의미망이 완전히 다른 어휘와 문장의 병치는 단일 문장 내의 통사적인 단일 약호를 부정하고 몇 개의 약호를 교차시킴으로써 일상적 언표의 통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말(“6백만원”, “情蟲”, “사랑”, “나이”, “Tomorrow-never-comes!” 등)은 이러한 부정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시적(일의적) 의미의 틀에서 벗어나 시니피앙의 충돌에 의해 기존 의미의 와해와 동시에 새로운 의미생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충돌

과정에서 생성된 웃음은 현실적 생활고를 훌쩍 뛰어넘어 모순을 표현하는 실천으로서, ‘자유’와 ‘6백만 원이 없어 초조한 생활고’ 사이의 경계를 철폐하며 무한한 의미를 형성하는 동시에 무너뜨리는 반복을 지속하고 있다.

제목부터 반어적인(그러나 생략 표시로 인해 반어적이라는 표지조차 와해되고 있다.)이 텍스트에서 엿볼 수 있는 웃음 역시 통사론적 규칙의 위반(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생략의 기법, 불합리한 행갈이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이 축적적이고 지시적으로 재현된다고보다는 오히려 지시적인 의미를 차단하고 일의적인 의미를 와해시킴으로써 현실의 중압감으로부터의 해방을 꾀하는 의미실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벗어남은 곧 통사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기에 텍스트 실천은 해체라는 양상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웃음 역시 이 과정에서 ‘파괴와 생성’이라는 양가성을 동시에 실천하는 시적 언어로 기능한다. 이는 현실의 고통과 억압을 웃음의 역동성으로 무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 (2) 언어유희와 파라그램(paragram)적 의미 실천

박남철 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언어유희는 시적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무한성 차원에서 의미의 유희(미결정성, 불확정성)를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언어의 특성 자체가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시 텍스트에 드러나는 모순어법이라던가 파라그램 등은 개념적 통일성을 파열시키는 논리적 뒤틀림, 혹은 창의적인 통사의 개발을 통해 언어가 지니는 상징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일종의 쾌락을 불러옴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는 ‘시적 언어’ 그 자체가 된다. 박남철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언어유희는 이러한 ‘시적 언어’의 특성을 실천하는 주요 전략이 되는데, 특히나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가 자주 등장한다.

출근길에  
석계역에서  
커피 자동판매기에다  
150원을 밀어놓고 밀크커피를 누른 다음  
잠시 기다리고 있으려니 앵, 이젠 꺼내야지  
하며 시커먼 손 하나가 들어와 커피를 꺼내려고  
순간적으로 그 손을 저지하며  
손 임자를 쳐다보니 얼굴이 온통 새까만  
누더기를 걸친 거지

①(자왈 위선자는.....)

왜 이러느냐고 물으니  
배가 고파, 내가 먹어야 돼, 했다②(천보지.....)  
안돼, 하며 만류하려다가 나는 펄떡  
그 더러운 손을 잡고 승강이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후닥닥 그 손을 놓아버렸다③(천보지.....)  
내 손에서 놓여난 거지는 앞이마를 번들거리며, 커피를  
꺼내어 훌훌 불어가며 흠에 도착하는 전동차 쪽으  
로 걸어가며  
너무나 당연히 잘 마시고 있었다.

④(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화니라.....)

⑤천보지.....

「天報之」 중에서

위 텍스트에서 실천된 웃음의 요소는 무엇보다 ‘천보지’라는 동음이의어의 활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보지天報之’란 원래 공자가 <繼善篇>



에서 “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를 주신다)”라고 언급한 글귀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텍스트에서는 음은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한자가 한글로 변환되어 쓰이면서 본래의 뜻은 지워지고 다중적이고 복수(複數)적인 파라그람적 글쓰기의 실천으로 나타난다.<sup>18)</sup> 파라그람(paragram)은 본래 철자의 오류를 의미하나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파라그람은 단어의 시니피앙이 그 단어와 철자가 다르면서 같은 시니피앙을 지닌 단어의 시니피에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그녀는 파라그람의 망을 “시적 언어활동에서 문학적 이미지를 고안한 표모델(선적이 아닌), 의미의 중층 결정을 지칭하는 역동적이고 공간적인 도표”라고 부른다. 원래의 단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미자질들은 사라지고 의미의 중층결정 지대로 옮겨가면서 시적 언어의 부정성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의미생산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이다.<sup>19)</sup> 위의 텍스트에서의 웃음 역시 원래의 단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망은 사라지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가 생성되면서 출현하는데, 이는 한 코드의 위반이자, 다른 코드와의 새로운 접속을 통한 의미망의 해체와 조립이라는 ‘시적 언어’의 부정성과 생성 기제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텍스트에서 사용된 파라그람의 경우를 보자면, 각각의 언표 ①, ②, ③, ④, ⑤가 위치한 공간은 앞뒤 문맥 사이에서 각각의 텍스트를 흡수하거나 분열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시적 시니피에는 또 다른 담론에 속하는 여러 시니피에에 둘러져 상호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시적 언표에서 몇몇의 다른 담론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적 시니피에 주위에서는 복수(複數)적인 텍스트 공간이 창출되므로, 시적 시니피에를 단일 약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녀는 시적 시니피에는 몇 개의 약호가 교차하는 장일뿐 아니라 그러한 약호는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소쉬르는 이것을 파라그람이라고 불렀지만, 자신은 파라그마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와는 달리 시적 언어가 갖는 특성 중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 꼽는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앞의 책, 2005, 249-250쪽 참조.

19) 위의 책, 269쪽.

①의 경우는 출근길에서 자신의 커피를 채가는 손의 입자가 거지임을 확인한 후 이어지는 독백인데, 이것이 한자어 ‘위선자(僞善者)’가 아니라 한글 ‘위선자’로 읽히면 한자어가 갖는 의미(‘선을 행하는 자’)와 또 다른 의미(‘거짓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겹쳐지면서 각각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분열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사건의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 시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①의 파라그마티즘적 글쓰기에 의해 “거지”와 “위선자(僞善者)”, “위선자” 사이에 부정성이 발현되면서 단선적인 서사성은 무너진다. 이것은 ②와 ③의 경우를 보면 더 뚜렷이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문맥상 ②의 앞에 놓인 거지의 발화는 ②와 연결되어 자연스레 공자의 글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 배고픈 거지에게 양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지의 더러운 손을 잡고 싶지가 않아서 커피를 놓아버린 문맥으로 파악되면서 그 본래적 문맥과 ①의 “위선자”(‘거짓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겹쳐져서 읽히게 된다. 여기서 의미의 새로운 중층결정지대가 생성된다. 이것이 ④에 이르면 순순히 배푼 호의는 아니었지만, 빼앗은 커피를 너무나도 잘 마시고 있는 거지를 보면서 이제는 자신이 “위불선자(爲不善者)”인지, 커피를 빼앗은 거지가 “위불선자”인지 의미가 애매해지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즉 누가 선을 베풀고, 누가 배푼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습적인 도덕과 교훈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만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⑤에 의해 (①,②,③,④)는 모두 괄호 안의 독백이지만, ⑤는 독백이 아님에 유의하자.) 앞서 언급한 시 텍스트의 내용이 여러 가지 문맥으로 옮겨지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의미망이 형성되는데, 그 중 성적인 것과 결부된 의미망으로 옮겨지면서 결정적으로 웃음이 생성된다. 여기서의 웃음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긍정하고 부정하는 동시적이고 복수적인 활동 속에서, 주어진 상징계의 문법과 고정된 의미체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해나가는 시적 언어의 다층적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름은 무엇이야,  
 -박해미으.....  
 어디 사니,  
 -올개아파트, 이씨사동.....  
 백구호.  
 -백구오!  
 전화번호는?  
 -구치사에.....  
 일팔구팔!  
 일파구파!  
 엄마 이름은?  
 -손미자!  
 아빠 이름은?  
 -방낭자.....  
 박남철!  
 -방낭자.....  
 박남철!  
 -방낭자! 방낭자!

「방낭자!」 중에서

이 텍스트에서의 웃음은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어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불일치 사이에서 의미화 되지 않은 기호의 난장(의미의 공백지대-“박해미으”, “이씨사동”, “일파구파!”, “손미자!” 등)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는 소리는 같으나 철자가 달리 나타나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의미가 차단되는) 파라그람적 글쓰기에 해당할 것이다. 어린 아들의 정확하지 않은 발음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발화함에 있어 상징계적 기호의 동일성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아마도, 극단적으로 확대된 부정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판단에 속한 부정(0-1논리에 작용하는 파롤)이나 판단을 구성하는 부정(지양)과는

다른 부정성으로서, 바로 무(無)로 돌리는 부정성이며, 스스로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의 부정성인데, 파를을 부정함과 동시에 이 부정에서 생긴 것마저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빠 이름인 “박남철!”이 “방남자! 방남자!”로 되받아쳐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사한 발음이 반복을 통해 또 다른 의미화 과정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수적 의미작용 역시 시적 언어가 갖는 의미의 무한성으로서의 부정성에 다름 아니며, 여기서 유발되는 웃음 또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간극 사이에서 생성된 의미의 마비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호 체계나 의미 체계는 당연히 해체되고 독자는 해체와 함께 새롭게 생성되는 또 다른 의미 사이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3) 범주화(categorization)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

박남철의 웃음의 전략 중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범주화(categorization)의 오류를 통한 타자 드러내기이다. 무릇 카테고리(category)<sup>20)</sup>라는 것이 형태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의 구별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다면, 이때의 유사성이란 대상들을 결집하게 만들고, 차이점이란 서로 대립시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그 범주화의 경계설정에 대한 정당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sup>21)</sup> 박남철의 시에 나타나는 웃음의 전략 중 하나는 이 범주화 간에 있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 범주화의 지표 설정 자체가 오류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그 언어 스스로가 지닌 타자성을 드러내는 넌센스와 관련이 있다. 이는 범주화의 오류를 노출시킴으로써 범주화가 갖는 규범적 차이와 억압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언어의 범주화가 오류를

20) 우리말 번역어로는 ‘범주’라고 해야 할 이 카테고리는 대체로 철학적 범주, 언어학적 범주, 일상적인 것의 범주, 공통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총체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언어학적 범주는 의미적이고 문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류 내부에다 어휘 요소를 위치시킨다. 논리적이고 문법적인 범주(동사, 명사, 성, 수)인 것이다. 조르주 비노, 임기대 역, 『분류하기의 유희』, 동문선, 2000, 74쪽 참조.

21) 위의 책, 80쪽.

빛거나 착오가 생기는 지점에서 웃음이 생겨나는데,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떤 사물에 대한 직관적이고 추상적인 표상들 사이의 반대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1

야간,  
여상 1학년, 1학년 6반,  
약간 도전적인 아니;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아이,  
그러나 약간 못생긴.....

「선생님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중략)

시가 내려와 모든 것이 피곤한 교탁 앞의 나를 향  
해 나의 응낙도 없이, 아니 차라리 저기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곤두세우고 있는 나를 향해;  
「선생님, 밤에 해 보셨어요?」  
어떤 아이들은 까르르 웃고, 어떤 아이들은 약간  
낮게 <아니! 감히 선생님 앞에서!>하고.....  
(중략)

2

그렇지, 어젯밤엔 과연 하긴 했었지. 근 달포 이상  
이나 계속 떠나지 않고 껍썩껍썩 놀라고 있는 시를 떠  
나 보내기 위해 새벽 네시에 돼지곱창집엘 갔다가, 문

---

22) 쇼펜하우어는 우스꽝스러운 것과 관련하여 어떤 객체(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와 추상적인 개념(표상)사이에서 하나의 대비가 일어날 때, 이 대비가 우스꽝스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에게서 웃음의 현상은 때면 이러한 경험과 이 경험에 의해 생각된 실제적인 대상 사이에서, 말하자면 추상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이에서, 불일치함을 갑자기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류종영, 앞의 책, 277쪽.

을 닫기에 석관동 네거리를 건너고 그 앞에 새로 생긴  
인삼찻집[두레박;<두러박>이라고 써어 있었다]에  
서 술을 마시다 돼지같이 못생긴 뚱뚱한 계집애는 집  
에 보내고 서른아홉 살 먹었다는 뭐 좀 알 것 같은, 노  
름으로 한밑천 다 날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여자  
와 아침까지, 의논해보다가 옷 벗는 여자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만 잠들어버렸었지.  
열시쯤에 깨어보니 여자가 옆에 없길래.....

3

사랑하는 나의 아기들아, 너희들 전라도· 충청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 사랑하는 나의 하느님의 아  
이들아,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은 밤에 해가 없어서  
이 형광등 아래서 배우고 있구나; 거의 7년 동안이  
나,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아이들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멍청하고도 멍청한 형광등  
아래서 배우고 있었구나!

4

「그래, 그 답은 뭐지?」 모른 채 물으니  
「밤에 해가 있긴 어딴어요!」 였지.  
그렇구나. 밤에 해가 없긴 없구나.....나는 <나>!  
가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을 향,  
해, 실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겁 없이 활짝 웃어줄 수 있었지.  
(하락)

「수수께끼」 중에서

위의 텍스트에서 생성된 웃음은 바로 범주화의 오류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은 언어학적 범주(논리적이고 문법적인 범주로서  
동사, 명사, 성, 수 등) 차원에서 보자면 1에서 학생이 낸 수수께끼와 4에

서 발화된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 범주의 오류는 “해”가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그 범주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때 생기는 넌센스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주화의 오류 과정에서 많은 타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이 제시한 “해”라는 언어학적 범주에 대해 2에서의 발화자는 성적인 범주를 떠올리면서 술집 여자와의 성교가 무산돼버리고 만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속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3에서는 밤에 “형광등” 아래서 고된 수업을 받고 있는 야간 여학생들의 파리한 모습이 “해”가 없어서라고 본 점에서,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아둔함을 “형광등”이라고 빗대고 있는 점에서, “해”와 “형광등”의 범주는 한 개념의 여러 표상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4에서는 밤에 “해”가 어딴냐는 학생의 대답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격렬한 웃음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에 대한 화자의 고민, 야간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연민, 남자 교사를 놀려먹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발랄함 등이 범주화의 경계 설정 밖에서 자신이 타자임을 드러내는 개념적 의미의 부정성으로 작용한다. 이때의 웃음이란 범주화의 오류 과정에서 그 범주화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여러 표상들의 불일치가 생성한 다층적인 의미작용의 소산인 것이다.

범주화의 오류(착오)로 인한 웃음의 유발은 「박수부대」에서 ‘박수’를 ‘福壽’나 ‘復讐’ 등으로 그 개념의 범주를 넓혀나감으로써 원래의 ‘박수’가 갖는 개념적 범주를 의도적으로 전복시켜버린다는가, 「새로운 돼지」에서의 “자고로 ‘집 家’字란 ‘갓 쓴 돼지’를 形象하나니.....이거”, “南喆 돼지야아, 너도 이제 어엿한 ‘豚舍的 一家’를 이루지 않았느냐.....” 경우처럼 일상적인 단어의 범주가 은폐시키고 있는 의미 영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념 범주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때의 웃음은 특정 단어가 갖는 개념 설정의 지표를 확대시키거나 그 단어의 개념이 갖는 표상의 틀을 깨트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 역시 범주화로 인한 타자성을 보여주는 의미실천이 된다.

#### 4.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일명 ‘유희적 해체’로 불리우는 박남철 시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과 의미작용을 시적 언어의 부정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필자가 박남철의 웃음에 주목하였던 것은 언어적 파괴와 형태 파괴를 통한 해체적 실험시 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적 해체시가 ‘가장 박남철다운’ 특성을 지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웃음이 지니는 의미화를 해체시와 관련하여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웃음이 지니는 해체적 특성과 시적 언어가 지니는 부정성이라는 특성을 점목시킴으로써 웃음의 생성 기제가 시적 언어의 부정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시적 언어의 부정성 차원에서 살펴본 박남철 시 텍스트에 나타난 웃음의 양상과 기능은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 생성의 다중화>, <언어유희와 파라그람(paragram)적 의미실천>, <범주화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사 규칙의 위반과 의미 생성의 다중화> 같은 경우는 통사규칙의 위반을 통해 유발한 웃음이 의미의 다중성과 불확정성, 유동성을 낳는다는 차원에서 시적 언어가 갖는 의미의 무한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유희와 파라그람(paragram)적 의미실천>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한 파라그람적 글쓰기가 선(線)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망을 해체하고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의미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범주화의 오류와 타자 드러내기>에서는 범주화의 오류를 통해 일상적인 단어의 범주가 은폐시키고 있는 의미 영역을 노출시킴으로써 범주화의 오류로 인한 타자를 드러내는 의미실천이 바로 웃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의 해체시가 당대의 억압된 현실에 대해 언어적 파괴와 해체를 통한 저항의 한 수단으로 부상되었다는 문학사적인 진단은 이제는 일종의 클리셰가 돼버릴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이 당시 해체시



에 나타난 시적 언어를 시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당시 해체시가 보여준 상징계적 언어의 억압에 대한 파괴와 해체적 경향은 그 당시의 전체주의에 항거하는 방법적 저항이었다는 측면에서 시적 언어의 언어적 실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상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표상 작업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당시 해체시의 유산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시적 계보의 한 양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시학적 차원의 천착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웃음에 대한 의미화 양상의 고찰도 바로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나, 1980년대라는 제한성과 박남철의 초기 작품에 한정된 것이라는 제한성으로 인해 보편성의 한계를 안고 있어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 확장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구모룡,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 좋은날, 1998.
- 김병익, 「시, 혹은 진실과 현실 사이」, 『地上의 人間』, 문학과지성사, 1984.
- 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김 현, 「방법적 인용의 시적 성과-박남철의 시세계」, 『현대시세계』, 1990. 9.
-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 박남철, 『地上의 人間』, 문학과지성사, 1984.
- 신현철, 「자유로운,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현대시세계』, 1991. 봄.
- 이상금, 「기법의 자유로움 혹은 정신의 자유로움」, 『오늘의문예비평1』, 1994. 4.
- 이순옥, 『한국 현대시와 웃음시학』, 청동거울, 2004.
- 이승훈, 『과정으로서의 나』, 푸른사상, 2003.
- 정현경, 「웃음에 관한 몇 가지 성찰」, 『카프카연구』, 제 21집, 한국카프카학회, 2009.
- 정효구, 「박남철 論」, 『현대시학』, 1991.2.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피종호, 『해체미학』, 뿌리와 이파리, 2005.
- 한강희, 『한국 현대 비평의 인식과 논리』, 태학사, 1998.
- \_\_\_\_\_, 『반시대적 고찰』, 한겨레, 1988.
- \_\_\_\_\_,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 1991.
- \_\_\_\_\_, 『해체시론』, 새미, 1998.
- Culler, Jonathan, 이종인 역, 『소쉬르』, 시공사, 1998.
- \_\_\_\_\_, 이은경·임옥희 역, 『문학이론』, 동문선, 1999.
- Kristeva, Julia.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trans. M. Wall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4.
- \_\_\_\_\_, 서민원 역, 『세미오티케』, 동문선, 2005.

- \_\_\_\_\_, 김인환 역, 『언어 그 미지의 것』, 민음사, 2001.
- \_\_\_\_\_, 유복렬 역,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푸른 숲, 1998.
- McAfee, Noelle,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앨피, 2007.
- Morson, Gary Saul,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 Norris, Christopher, 이현주 역, 『해체비평』, 한신문화사, 1995.
- Oliver, Kelly. *Reading Kristev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ABSTRACT〉

# Poetics of Humor in Deconstructive Poetry in the 1980s : Focused on the Negativity of Laughing in Poems by Park Namcheol

Nanhee Kim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poetically looks into the poems of humor written by Park Namcheol who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poet of deconstructive poems in the 1980s. It has been planned in order to look into a ludicrous aspect and meaning on the negativity of poetic language seen in the poems written by Park who is called 'playful deconstruction'. The author of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humor of Park Namcheol because of the decision that, rather than deconstructive experimental poems, playful deconstructive poems leading to laughing have 'the most Park Namcheol-ful' features. The problem, however, was how to make clear what meaning the humor has in relation with deconstructive poems. With an aim to make clear that the mechanism of creating laughing works as the negativity of the poetic language, this paper ludicrousness combines deconstructive features with the negativity of a poetic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gativity of the poetic language, humorous aspects and functions seen in Park Namcheol's poem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violation of syntactic rules and the collapse of a dichotomous composition; a wordplay and putting paragrammatic meaning into practice; and the errors in categorization and bringing others out. First of all, the violation of syntactic rules and the collapse of a dichotomous

composition were in tune with the infinity of the meaning the poetic language has, as the humor brought about by the violation of syntactic rules gave rise to the multiplicity, inaccuracy and flexibility of meaning. Second of all, the wordplay and putting paragrammatic meaning into practice showed that paragrammatic writing through the wordplay worked as a mechanism which was capable of destroying a linear and unidimensional meaning network, but of creating a multi-dimensional and dynamic meaning. Last but not least, the errors in categorization and bringing others out could make sure that, by exposing meaning ranges which usual word categories cover up through the errors in categorization, putting into practice the meaning of bringing others out caused by the errors in categorization is laughing.

**Keywords** : humor, a poetic language, negativity, the violation of syntactic rules, the infinity of meaning, a wordplay(a pun) paragrammatic writing, category, the errors in categorization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
---

